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박 유 립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이 은 희†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병렬다중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737명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 척도, 자해기능 평가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SPSS 23.0과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 이내에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대상자는 737명 중 143명(19.4%)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비자살적 자해는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 중 자기비난과 파국화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파국화만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비자살적 자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파국화

* 본 연구는 박유립(2021)의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은희,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로 7

Tel : 055-249-2821, E-mail : ehlee@kyungnam.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비자살적 자해는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로(Nock, 2009),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에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자살적 자해에 관한 연구가 2019년을 기준으로 관심이 급증하였다(박경애, 김지연, 강남이, 김숙진, 윤희옥, 2020). 비자살적 자해는 오랫동안 경계성 성격장애의 하나의 증상으로 여겨져 왔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주요 우울 장애,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범불안 장애 등(Nock, Joiner, Gordon, Lloyd-Richardson & Prinstein, 2006)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보고되었다(Klonsky, May & Glenn, 2013; Nock, 2010). 또한 DSM-5에 따르면, 20~29세가 비자살적 자해로 입원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APA, 2013), 성인의 자해 행동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를 비롯한 주변인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져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Whitlock, Muehlenkamp & Eckenrode, 2008) 자해로 인한 심리적 및 실제적인 폐해가 장기화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Whitlock et al., 2011) 자해하는 성인은 알코올 및 담배 등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중독 대상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Serras, Saules, Cranford & Eisenberg, 2010),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초기 성인기의 자해행동 비율의 증가와 자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및 신체적 손상을 고려하여 초기 성인기의 자해행동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비자살적 자해의 기간과 관련하여 DSM-5에서는 1년 이내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APA, 2013),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암묵적 인식과 실제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1년 이내에 했을 때 비자살적 자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강하고, 최근일수록 비자살적 자해를 지속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lenn, Kleiman, Cha, Nock & Prinstein, 2016).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한 대학생을 연구하고자 한다.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학대(Liu, Scopelliti, Pittman & Zamora, 2018), 불안정한 애착(Tao, Bi & Deng, 2020), 부모로부터 소외되거나 거부당한 느낌(Bureau et al., 2010)과 같이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야기하며,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비자살적 자해와 같은 보상전략의 사용을 촉진한다(Guérin-Marion, Bureau, Lafontaine, Gaudreau & Martin, 2021). 이와 관련하여, 초기 성인기의 자해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 분리/상실 경험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함경애, 김서영, 이동귀, 손하림, 2021). 분리/상실 경험, 양육자의 신체적, 성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 등과 같은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ehan, 1993), 애착과 자해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불안정 애착은 자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tepp 등(2008)의 불안정 애착과 대인관계 문제가 자해와 관련된 행동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은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ilbert, McEwan, Bellow & Gale(2009)의 연구에서도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은 자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Tatnell, Kelada, Hasking과 Martin (2014)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자살적 자해에 관한 연구 결과, 불안정 애착이 자해의 시작과 연관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을 개관한 연구에서 아동기의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김수진, 2017).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기에 경험한 거부경험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거부에 민감하게 한다(Downey & Feldman, 1996). 이와 관련해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은 불안정 애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과 거부민감성은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꺾연희와 정원철(2018)의 연구에서는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은 Feldman과 Downey(1994)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Feldman & Downey, 1994)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단서에 민감하다(Levy, Ayduk & Downey, 2001). 뇌영상(neuroimaging)을 이용한 연구들의 결과,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참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 행동이 없지만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등 심리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조군과 심리적 어려움이 없는 대조군에 비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으며 사회적 배제 상황의 신경처리가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2017; Groschwitz,

Plener, Groen, Bonenberger & Abler, 2016; Perini et al., 2019). 즉,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비자살적 자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부 단서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 상황 속에서 관계를 유지시키고 개선시키고자 자신만의 전략으로 정서적 반응을 하는데(Gross, 1998), 정서조절에 실패하는 경우, 부정적 정서가 강화되거나 과잉 행동이나 행동 억제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이러한 정서조절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외적/행동적 측면의 정서조절에서 내적/인지적 측면의 정서조절로 이동하므로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인지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인지적으로 정서를 통제하는데 실패하면 부정정서에 빠져들기 쉬우며, 부정정서를 유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Joormann & Siemer, 2011).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적응적인 전략과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구분되며(Garnefski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가 있다. 자기비난(self-blame)은 사건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고 전략을 의미하며, 타인비난(other-blame)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사고 전략이다. 반추(rumination)는 부정적 사건과 연관된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되짚어 생각하는 전략이며, 파국화(catastrophizing)는 Ellis(1994)의 4가지의 핵심 비합리적 신념 중 하나로,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의 두렵고 끔찍한 면

을 명백하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타인보다 훨씬 더 최악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의 과장을 말한다(DiGiuseppe, Doyle, Dryden & Backx, 2014).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비자살적 자해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김수진, 2017). 이와 관련하여 비자살적 자해의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의 정서조절 곤란도를 비교하였을 때,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정서조절 곤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문희, 신호정, 2019). 대학생의 비자살적 자해 중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도 부정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윤, 조영희, 김성연, 이동훈, 2020). 또한, 박경애 등(2020)의 연구에서도 반추, 자기비난 등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비자살적 자해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비자살적 자해와 연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불안정한 양육환경으로부터 발달 되는 거부민감성은 사소한 거부단서에서도 민감하여 거부 단서로 지각되는 상황에 불안, 슬픔, 수줍음(Baldwin, 1994; Cooper, Shaver & Collins, 1998) 등의 정서를 경험하며 이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여 비자살적 자해와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조절을 어렵게 하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과국화는 서로 다른 대처전략으로, 인지적 전략에 따라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전략이 비자살적 자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Tatnell, Hasking과 Newman(2018)은 애착과 비자살적 자해 간에 어떤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지를 다중매개모형을 통하여 검증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각각 추정하기보다 동시에 추정하는 병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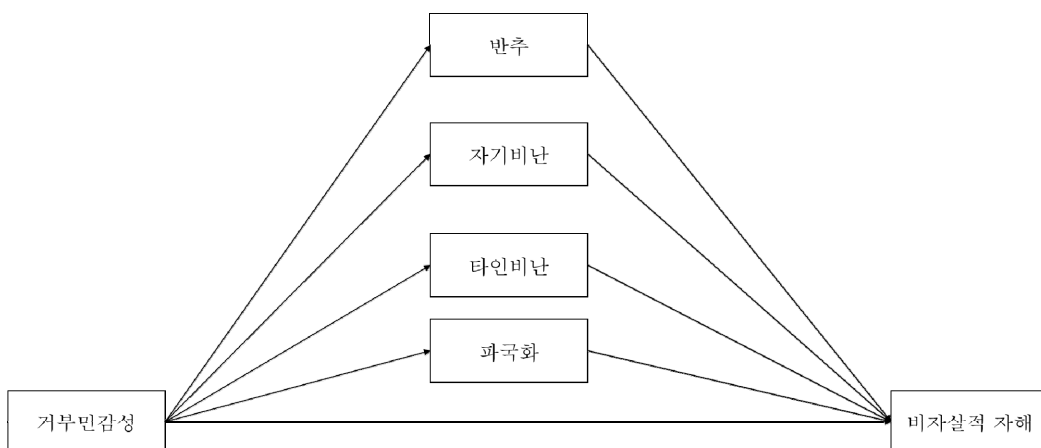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Hayes, 2013)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DSM-5를 고려하여 비자살적 자해의 기준을 최근 1년 이내로 설정하고, 높은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의 상대적인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반추, 자기 비난, 타인비난, 과국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구글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를 이용하여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9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는 대학생만이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와 대학생 이용자수가 가장 높은 카페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지 모두 연구에 대한 안내 및 설문조사의 목적, 참가자의 권리, 비밀 보장에 대해 명시하였다.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별 분포 (N = 143)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30	21%
	여자	113	79%
학년	1학년	31	21.7%
	2학년	40	28%
	3학년	38	26.6%
	4학년	34	23.7%

다. 경상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직접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230부, 구글 온라인 설문 양식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507부로 총 737부였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비자살적 자해 기준(DSM-5를 고려하여 모발 뽑기 장애 및 피부벗기기 장애와 중복되는 문항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신 문항을 제외한 자해경험이 최근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을 충족한 설문지 153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무선반응, 고정반응, 무응답)를 제외하여 총 14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737명 중 총 143명이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약 19.4%에 해당한다. 그중 남학생은 30명(21%), 여학생은 113명(79%)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1학년이 31명(21.7%), 2학년이 40명(28%), 3학년이 38명(26.6%), 4학년이 34명(23.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도구

거부민감성 척도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거

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부민감성 하위요인별 문항으로, 예기분노 5문항, 예기불안 4문항, 과잉반응 4문항, 거부지각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명진과 양난미(201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예기분노 .89, 예기불안 .75, 과잉반응 .84, 거부지각 .74, 전체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예기분노 .85, 예기불안 .77, 과잉지각 .85, 거부지각 .78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김소희(200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36 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의 하위요인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마다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16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12번 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자기비난 .76, 타인비난 .83, 반추 .68, 파국화 .78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 하위요인 별로 반추 .69, 자기비난 .76, 타인비난 .86, 파국화 .76으로 나타났다.

비자살적 자해 척도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loyd, Kelley와 Hope(1997)가 개발하고, 권혁진과 권석만(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자해기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FASM)를 사용하였다. 자해기능 평가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자해 행동의 방법과 빈도를 묻는 문항들로 ‘없음(0점)’에서 ‘6회 이상(6점)’까지의 7점 Likert 식 척도로 평정하는 11문항과 기타 자해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주관식 문항까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분은 자해 행동과 관련된 요인(자살 의도 유무, 시작 연령, 실행 전 준비시간, 약물 복용 여부, 고통 정도 등)을 파악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부분은 자해 행동을 하는 이유 및 목적을 묻는 22개 문항으로 ‘전혀 없다(0점)’에서 ‘자주(3점)’까지 4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해 방법과 빈도를 확인하는 첫째 부분과 기간 및 자살여부를 묻는 둘째 부분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자해 방법과 빈도를 확인하는 첫째 부분에서 DSM-5를 고려하여 모발 뽑기 장애 및 피부벗기기 장애와 중복되는 문항(첫째 부분에서 3번과 11번)과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신 문항(4번)을 제외한 나머지 8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의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model 4)를 사용하였다.

결 과

비자살적 자해 방법과 빈도 기술통계

1년 이내에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143명의 대학생들의 자해방법과 빈도는 표 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을 깨물었음’ 항목이 101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로 자신을 때림’ 90명(62.9%),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었음’ 74명(51.7%), ‘몸에 있는

표 2. 비자살적 자해 방법 별 빈도 (N=143)

비자살적 자해 방법	비자살적 자해 행동 빈도						
	0 (없음)	1	2	3	4	5	6회 이상
칼로 피부를 긁거나 피부에 무엇인가를 새김	71.3% (102명)	11.9% (17명)	6.3% (9명)	2.8% (4명)	2.8% (4명)	0	4.9% (7명)
고의로 자신을 때림	37.1% (53명)	20.3% (29명)	10.5% (15명)	9.1% (13명)	4.9% (7명)	4.2% (6명)	14.0% (20명)
몸에 있는 상처를 꼬집었음	67.1% (96명)	7.0% (10명)	7.0% (10명)	4.9% (7명)	5.6% (8명)	1.4% (2명)	7.0% (10명)
피부를 볼로 지졌음	97.9% (140명)	1.4% (2명)	0.7% (1명)	0	0	0	0
물체를 손톱 밑 또는 피부 속에 찔러 넣었음	86.0% (123명)	4.9% (7명)	2.8% (4명)	1.4% (2명)	2.1% (3명)	0	2.8% (4명)
자신을 깨물었음	29.4% (42명)	16.8% (24명)	10.5% (15명)	9.8% (14명)	4.9% (7명)	4.2% (6명)	24.5% (35명)
피가 날 때 까지 신체 특정 부위를 꼬집었음	84.6% (121명)	3.5% (5명)	4.9% (7명)	2.8% (4명)	0.7% (1명)	0.7% (1명)	2.8% (4명)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었음	48.3% (69명)	11.2% (16명)	11.2% (16명)	11.2% (16명)	2.8% (4명)	4.2% (6명)	11.2% (16명)

상처를 꼬집었음' 47명(32.9%), '칼로 피부를 긁거나 피부에 무엇인가를 새김' 41명(28.7%), '피가 날 때 까지 신체 특정 부위를 꼬집었음' 22명(15.4%), '물체를 손톱 밑 또는 피부 속에 찔러 넣었음' 20명(14.0%), '피부를 불로 지졌음' 3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와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균 및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 이내, 첨도는 절댓값 7 이내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Kline, 2011), 본 연구에서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r=.51, p<.01$)이 나타났으며,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

위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반추($r=.33, p<.01$), 자기비난($r=.31, p<.01$), 타인비난($r=.22, p<.01$), 파국화($r=.46, p<.01$)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r=.18, p<.05$)이 나타났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r=.26, p<.01$)이 나타났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비난($r=.22, p<.01$)과 파국화($r=.33, p<.01$)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반추($r=.16, n.s$)와 타인비난($r=.05,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병렬다중매개 효과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표 3.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143)

변인	1	2	2-1	2-2	2-3	2-4	3
1. 거부민감성	-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51**	-					
2-1. 반추	.33**	.78**	-				
2-2. 자기비난	.31**	.52**	.39**	-			
2-3. 타인비난	.22**	.43**	.06	-.34**	-		
2-4. 파국화	.46**	.86**	.63**	.37**	.31**	-	
3. 비자살적 자해	.18*	.26**	.16	.22**	.05	.33**	-
평균(M)	46.78	51.30	14.80	13.69	10.80	8.83	8.83
표준편차(SD)	11.89	8.63	3.09	3.47	3.78	3.04	8.29
왜도	-.19	-.25	-.45	-.17	.33	-.00	1.43
첨도	-.43	.53	-.01	-.25	-.34	-.66	1.38

* $p<.05$, ** $p<.01$

표 4.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병렬다중매개효과

경로		B	se	t	95% CI	
LL	CI					
(독립)	(매개1)					
거부민감성	반추	.08	.02	4.10***	.04	.13
(독립)	(매개2)					
거부민감성	자기비난	.09	.02	3.91***	.05	.14
(독립)	(매개3)					
거부민감성	타인비난	.07	.03	2.73**	.02	.12
(독립)	(매개4)					
거부민감성	과국화	.12	.02	6.22***	.08	.16
(독립, 매개1~4)	(종속)					
거부민감성		.01	.07	.19	-.12	.14
반추		-.31	.28	-1.10	-.87	.25
자기비난	비자살적 자해	.28	.25	1.14	-.21	.78
타인비난		-.05	.22	-.22	-.49	.39
과국화		.99	.33	3.01**	.34	.63

*p<.05, **p<.01, ***p<.001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과국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병렬매개모형검증을 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대학생의 반추(B=.08, t=4.10, p<.001), 자기비난(B=.09, t=3.91, p<.001), 타인비난(B=.07, t=2.73, p<.01), 과국화(B=.12, t=6.22,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변인 4개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과국화(B=.99, t=3.01, p<.001)는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거부민감성(B=.01, t=.19, n.s), 반추

(B=-.31, t=-1.10, n.s), 자기비난(B=.28, t=1.14, n.s), 타인비난(B=-.05, t=-.22, n.s)은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표 5.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총효과 및 직접효과

	B	se	t
총효과	.13	.06	2.18*
직접효과	.01	.07	.19
모형 요약	R ² =.03, F=4.7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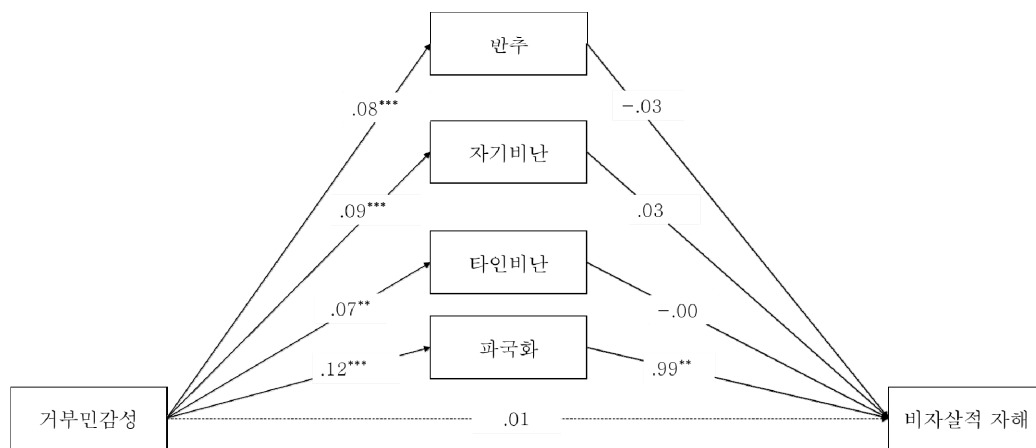
미치는 영향은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매개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 총효과와 직접효과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합친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13, t=2.18, p<.0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하위요인 4개를 모두 통제 한 상태에서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 t=.19, n.s$).

다음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의 검증 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B=.11, CI [.04 \sim .2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파국화($B=.12, CI [.04 \sim .22]$)를 제외한 나머지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

표 6.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의 간접효과

	Effect	se	95% 신뢰구간	
			Boot LL	Boot UL
전체	.11	.04	.04	.20
거부민감성 → 반추 → 비자살적 자해	-.03	.03	-.10	.02
거부민감성 → 자기비난 → 비자살적 자해	.03	.03	-.02	.09
거부민감성 → 타인비난 → 비자살적 자해	.00	.02	-.04	.04
거부민감성 → 파국화 → 비자살적 자해	.12	.05	.04	.22



* $p<.05$, ** $p<.01$, *** $p<.001$

그림 2.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서조절 전략 하위 요인(반추, 자기비난, 타인 비난, 파국화)의 병렬매개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하위요인의 병렬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737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9주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비자살적 자해의 기준에 충족된 인원은 153명으로, 성실하지 않은 답변(무선반응, 고정반응, 무응답)을 한 10명을 제외한 총 14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른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대학생은 737명 중 143명(19.4%)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의 비율은 23.1%에서 45.1%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국외의 입원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유병률은 35%~80%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많은 방법론적인 변화와 비자살적 자해의 정의에 따른 결과로(Hawton, Saunders & O'Connor, 2012; Koenig et al., 2017; Madge et al., 2011; Zetterqvist, 2015), 특히 방법론적인 오류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Swannell, Martin, Page, Hasking & John, 2014). 본 연구에서는 최근일수록 비자살적 자해를 지속할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Glenn et al., 2016)를 고려하여 비자살적 자해 기간을 최근 1년 이내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비교적 비자살적 자해의 지속성에 위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거부민감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반추, 자기비난, 타인 비난, 타인비난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비자살적 자해는 자기비난, 파국화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타인비난과 반추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추(김지윤, 김성연, 황희훈, 허소정, 이동훈, 2020; 민정향, 2019; 백보겸, 김지인, 권호인, 2019; 이인숙, 신희천, 2021; Selby, Anestis, Bender & Joiner, 2009; Voon, Hasking & Martin, 2014)와 비자살적 자해의 상관이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반추적 사고를 측정하는 척도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적어도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Schoofs, Hermans & Raes, 2010; Segerstrom, Stanton, Alden & Shortridge, 2003; Siegle, Moore & Thase, 2004; Tanner, Voon, Hasking & Martin, 2013; 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반추는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Trapnell & Campbell, 1999) 모두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에서는 반추의 기능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겨진다.

셋째,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안정한 양육환경으로부터 발달된 거부민감성은

비자살적 자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재희, 서경현, 2021; Jiang, Ren, Liu & You, 2021).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류혜라, 박기환, 2014;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즉, 높은 거부민감성은 거부기대를 가지고, 거부로 지각되는 상황에 부정 정서를 느끼며(Ayduk, Downey & Kim, 2001; 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이러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인지 전략의 사용으로 인해 비자살적 자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파국화만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국화 전략을 통해서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나경, 양난미, 2016; 민정향, 2019; Saldias, Power, Gillanders, Cambell & Blake, 2013)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파국화 전략의 사용으로 인하여 정서적 고통을 증폭시키고(Garnefski & Kraaij, 2006; Sullivan, Bishop & Pivic, 1995) 비자살적 자해와 같은 조절곤란 행동을 하게 된다(Selby, Kranzler, Panza & Fehling, 2016)는 정서홍수모델을 뒷받침한다. 또한, 함경애 등(2021)의 비자살적 자해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의 파국화 전략 차이를 비교한 연구결과, 비자살적 자해를 한 집단의 파국화 전략 사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는 파국화 전략이 중요함을 유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높은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지 전략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거부민감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파국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제공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파국화 전략을 통해서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비자살적 자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단기적으로 거부민감성에서 초래된 파국화를 염두에 두고 개입을 실시하여야 하여 함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부민감성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자, 라수현, 김나진, 김영희(2021)는 수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수퍼바이저들이 겪는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탐색한 결과 ‘자해특성 이해와 내담자 지지자원 구축’, ‘상담자의 지지자원과 보호체계 확립’, ‘자해의 탐색과 구체적인 개입방안 모색’, ‘내담자의 자기 돌보기를 위한 상담기술 훈련’, ‘상담의 구조화와 정서적 안전기제 역할’의 다섯 가지 군집이 확인한 바 있다. 거부민감성에서 초래된 파국화로 인해서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상담의 구조화와 정서적 안전기제 역할’이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관계경험이 취약한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상담자가 지지적이고 안정된 대상으로서 재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이들에게 안전한 심리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애착을 재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비난과 타인비난은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에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의 비합리적 사고 요소의 특성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REBT에서는 정서적 각성과 혼란을 유발하는 3가지 수준을 가정하고 있다 (DiGiuseppe & Doyle, 2019). 정서를 자각하기 전이나 동시에 첫 번째 수준의 인지(지각, 자동적 사고, 부정적 귀인)가 발생하며 두 번째 수준의 인지는 평가적 신념(파국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총체적 평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으로서 추론에서 묘사된 가능한 현실에 대한 평가이다. 세 번째 수준의 인지는 무의식적 도식적 요구나 당위적 사고이다. 결국 당위적 사고에서 과장성,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 자기비하 및 타인비하 사고가 파생되는데 자기비하 및 타인비하는 인간비하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양명숙 등, 2013).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에 인간에 대한 비하보다는 상황에 대한 과장이나 낮은 좌절에 대한 인내심과 연결되는 파국적 사고를 통해서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본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할지라

도 객관적인 측정값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비임상 집단의 자해는 임상집단과 달리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특성으로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응답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30명, 여학생 113명으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높으므로 성별 간 비자살적 자해의 경향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의 사례 수를 비슷하게 설정하여 성별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 행동의 경향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다. 1년 이내에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및 대상을 모집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대상에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비자살적 자해는 기간뿐만 아니라, 빈도, 자해 방법 및 유지 기간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고통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간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빈도, 자해 방법 및 유지 기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파국화만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연희, 정원철 (2018).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 학대 경험이 성인지각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4, 51-73.
- 권문희, 신호정 (2019). 대학생의 투쟁-도파-동결체계, 가족표출정서, 정서조절곤란의 관계: 비자살적 자해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비교. *인간이해*, 40(2), 149-173.
- 권혁진, 권석만 (2017). 한국판 자해기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87-205.
-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217-238.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진 (2017).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개관. *청소년학연구*, 24(9), 31-53.
- 김영자, 라수현, 김나진, 김영희 (2021).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상담의 개입방안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식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7), 117-140.
- 김재희, 서경현 (2021). 자기비판, 거부민감성 및 자기공격과 비자살적 자해행동 간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29(2), 122-129.
- 김지윤, 김성연, 항희훈, 허소정, 이동훈 (2020).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비자살적 자해 심각도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 정서홍수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065-2089.
- 김지윤, 조영희, 김성연, 이동훈 (2020). 대학생 자해 중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971-996.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203-218.
- 민정향 (2019). 비자살적 자해와 폭식에 대한 정서홍수모델의 검증: 부정조급성과 정서홍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8), 199-199.
- 박경애, 김지연, 강남이, 김숙진, 윤희옥 (2020).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에 대한 국내연구동향: 2000년부터 2019까지. *한국청소년연구*, 31(3), 213-250.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백보겸, 김지인, 권호인 (2019).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385-395.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김성희, 김춘경, 김형태 등 (2013).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1999). 학령기 아동의 부모 애착과 거부민감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9(1), 144-146.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신희천 (2021). 성인애착과 비자살적

- 자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479-505.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함경애, 김서영, 이동귀, 손하림 (2021). 초기 성인기 자해 행동. *재활심리연구*, 28(1), 137-16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Baldwin, M. W. (1994). Primed relational schema as a source of self-evaluative reac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4), 380-403.
- Brown, R. C., Plener, P. L., Georg, G., Dominik, N., Martina, B., & Birgit, A. (2017). Differential neural processing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in adolescent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d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rontiers in Psychiatry*, 8, 267.
- Bureau, J.-F., Martin, J., Freynet, N., Poirier, A. A., Lafontaine, M.-F., & Cloutier, P. (2010). Perceived dimensions of parenting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5), 484-494.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DiGiuseppe, R. A., & Doyle, K. A. (2019).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In K. S. Dobson & D. J. A. Dozois (Eds.),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pp. 191-217). The Guilford Press.
- DiGiuseppe, R., Doyle, K. A., Dryen, W., & Backx, W. (2014). *A practitioner's guide to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6), 1327-1343.
- Ellis, A. (1994).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A comprehensive method of treating human disturbance* (Rev., & updated ed). New York: Birch Lane Press.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Garnefski, N., & Kraaij, V. (2006).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specif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8), 1659-166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ilbert, P., McEwan, K., Bellew, R., Mills, A., & Gale, C. (2009). The dark side of competition: How competitive behavior and striving to avoid inferiority are linked to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self-harm.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2*(2), 123-136.
- Glenn, C. R., Kleiman, E. M., Cha, C. B., Nock, M. K., & Prinstein, M. J. (2016). Implicit cognition about self injury predicts actual self injurious behavior: Results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7), 805-813.
- Groschwitz, R. C., Plener, P. L., Groen, G., Bonenberger, M., & Ablner, B. (2016). Differential neural processing of social exclusion in adolescent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 fMRI study. *Psychiatry Research: Neuroimaging, 255*, 43-49.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Gu erin-Marion, C., Bureau, J. F., Lafontaine, M. F., Gaudreau, P., & Martin, J. (2021). Profiles of Emotion Dysregul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Self-Injure: Associations with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Non-Suicidal Self-Injury Characteristic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0*(4), 767-787.
- Hawton, K., Saunders, K. E., & O'Connor, R. C. (2012). Self-harm and suicide in adolescents. *The Lancet, 379*(9834), 2373-238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second edi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Jiang, Y., Ren, Y., Liu, T., & You, J. (2021).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non suicidal self injury: Mediation through depressive symptoms and moderation by fear of self-compass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4*, 481-496.
- Joormann, J., & Siemer, M. (2011). Affective processing and emotion regulation in dysphoria and depression: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cognitive control. *Social and Personality Compass, 5*(1), 13-2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onsky, E. D., May, A. M., & Glenn, C. R.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on suicidal self-injury and attempted suicide: Converging evidence from four sam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231-237.
- Koenig, J., Brunner, R., Schmidt, J. M., Parzer, P., Resch, F., & Kaess, M. (2017). Psychopathology and borderline personality pathology associated with lifetime self-injurious behavior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nd detainees. *Zeitschrift f ur Kinder- und Jugend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45*(6)

- 441-451.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 R. Leary(Eds.),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ehan,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iagnosis and treatment of mental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u, R. T., Scopelliti, K. M., Pittman, S. K., & Zamora, A. S. (2018). Childhood maltreatment and non-suicidal self-inju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Psychiatry*, 5(1), 51-64.
- Lloyd, E. E., Kelley, M. L., & Hope, T. (1997). Self-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provisional prevalence rates. In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New Orleans, LA*.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Madge, N., Hawton, K., McMahon, E. M., Corcoran, P., DeLeo, D., Wilde, E. J., Fekete, K., van Heerigen, K., Ystgaard, M., & Arensman, E. (201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tressful life events and deliberate self-harm: findings from the Child & Adolescent Self-harm in Europe (CASE) Study. *European Child Adolesc. Psychiatry*, 20(10), 499-508.
- Nock, M. K. (2009). Why do people hurt themselves? New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elf-inju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2), 78-83.
- Nock, M. K. (2010). Self-injur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1), 339-363.
- Nock, M. K., Joiner, T. E., Gordon, K. H., Lloyd-Richardson, E., & Prinstein, M. J. (2006).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adolescents: Diagnostic correlates and relation to suicide attempts. *Psychiatry Research*, 144(1), 65-72.
- Perini, I., Gustafsson, P. A., Hamilton, J. P., K€ampe, R., Mayo, L. M., Heilig, M., & Zetterqvist, M. (2019). Brain-based classification of negative social bias in adolescent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Findings from simulated online social interaction. *EClinicalMedicine*, 13, 81-90.
- Saldias, A., Power, K., Gillanders, D. T., Campbell, C. W., & Blake, R. A. (2013). The mediatory role of maladaptive schema modes between parental care and non-suicidal self-injury.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2(3), 244-257.
- Schoofs, H., Hermans, D., & Raes, F. (2010). Brooding and reflection as subtypes of rumination: Evidence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nonclinical samples using the Dutch Ruminative Response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2(4), 609-617.
- Segerstrom, S. C., Stanton, A. L., Alden, L. E., & Shortridge, B. E. (2003).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for repetitive thought: what's on

- your mind, and how, and how mu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909.
- Selby, E. A., Anestis, M. D.,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9). A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cascade model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2), 375.
- Selby, E. A., Kranzler, A., Panza, E., & Fehling, K. B. (2016). Bidirectional-compounding effects of rumination and negative emotion in predicting impulsive behavior: Implications for emotional cascades. *Journal of Personality*, 84(2), 139-153.
- Serras, A., Saules, K. K., Cranford, J. A., & Eisenberg, D. (2010). Self-Injury, substance use, and associated risk factors in a multi-campus probability sample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4(1), 119-128.
- Siegle, G. J., Moore, P. M., & Thase, M. E. (2004). Rumination: One construct, many features in healthy individuals, depressed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lupu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5), 645-668.
- Stepp, S. D., Morse, J. Q., Yaggi, K. E., Reynolds, S. K., Reed, L. I., & Pilkonis, P. A. (2008).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suicide-related behavi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5), 592-607.
- Sullivan, M. J. L., Bishop, S. R., & Pivik, J. (1995). The pain catastrophizing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4), 524-532.
- Swannell, S. V., Martin, G. E., Page, A., Hasking P., & St John N. J. (2014). Prevalence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nonclinical samples: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Suicide Life Threatening Behavior*, 4(3), 273 - 303.
- Tanner, A., Voon, D., Hasking, P., & Martin, G. (2013). Underlying structure of ruminative thinking: Factor analysis of the Ruminative Thought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3), 633-646.
- Tao, Y., Bi, X.-Y., & Deng, M. (2020). The impact of parent-child attachment on self-injury behavior: negative emotion and emotional coping style as serial mediators. *Frontiers in Psychology*, 11, 1477.
- Tatnell, R., Hasking, P., & Newman, L. (2018). Multiple mediation modelling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specific aspects of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70(1), 48-56.
- Tatnell, R., Kelada, L., Hasking, P., & Martin, G. (2014).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 NSSI: The role of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6), 885-896.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84.
- Treynor, W., Gonzalez, R., & Nolen-Hoeksema, S. (2003). Rumination reconsidered: A psychometric 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3), 247-259.

- Voon, D., Hasking, P., & Martin, G. (2014). The roles of emotion regulation and ruminative thoughts in non suicidal self injur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1), 95-113.
- Whitlock, J., Muehlenkamp, J., & Eckenrode, J. (2008). Variation in non suicidal self-Injury: Identification and features of latent classes in a college population of emerging adul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7(4), 725-735.
- Whitlock, J., Muehlenkamp, J., Purington, A., Eckenrode, J., Barreira, P., Baral Abrams, G., Marchell, T., Kress, V., Girard, K., Chin, C., & Knox, K. (2011). Non suicidal self-injury in a college population: general trends and sex differenc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9(8), 691-699.
- Zetterqvist M. (2015). The DSM-5 diagnosis of nonsuicidal self-injury disorder: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9(1), 1-13.
- 원 고 접 수 일 : 2022. 01. 13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3. 25
게 재 결 정 일 : 2022. 06. 10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and Non-Suicidal Self-Injury

Yurim Park

Kyeongnam University / Student

Eunhee Lee

Kyeongnam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rumination, self-blame, other-blame, catastrophiz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of college students and non-suicidal self-injury (NSSI). Data from 143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143 out of 737 people (19.4%) were subject to non-suicide within the last year. Second, it was found that rejection sensi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NSSI. Third, among the sub-factors of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it was found that self-blame and catastrophizing had a positive effect on NSSI. Finally, it was found that rejection sensitivity indirectly affects NSSI through catastrophizing. Based on the results, the meaning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oposed.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Non-suicidal self-injury,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Catastrophizing*